

호남 최대 어린이테마파크 화순 '키즈라라' 서 더위 탈출

여름 축제 4000여명 몰려...이무진·경서 등 수준 높은 공연 물놀이장·꼬마히어로 슈퍼잭 대형 포토존·플리마켓 등 인기

호남 최대 어린이테마파크 '키즈라라'가 여름방학과 휴가시즌을 맞아 준비한 여름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특히 이무진, 경서, 메이트리 등 정상급 뮤지션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는 등 축제 참가자들에게 잊지 못할 한여름 추억을 선사했다.

4일 화순 어린이테마파크 '키즈라라'에 따르면 지난 27일 테마파크 내 잔디광장에서 'KBS와 함께하는 어린이 가족 콘서트 키즈라라 여름축제'를 진행했다.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올해 처음으로 열린 '키즈라라 여름축제'에는 어린이와 가족 등 4000여명이 참가했으며, 물놀이장 등에서 무더위를 날려 보냈다.

키즈라라는 특히 청결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 2시간마다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안전요원을 곳곳에

배치하는 등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공간을 조성해 가족 단위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키즈라라는 또 잔디광장 내에 영유아체험관 캐릭터인 꼬마히어로 슈퍼잭 모형의 6m 크기의 대형 애드벌룬을 설치하고, 플리마켓과 체험존, 먹거리 존 등을 다양하게 운영해 만족도를 높였다.

이번 축제에선 마무리 행사로 'KBS와 함께하는 어린이 가족콘서트'도 진행했는데, 마술공연을 시작으로 이무진, 경서, 메이트리 등 정상급 뮤지션들이 대거 참여해 수준급 무대 공연을 선사했다.

가수 이무진씨는 "키즈라라를 방문한 어린이들이 지금 이 좋은 순간을 놓치지 말고 마음껏 재미있게 놀길 바란다"면서 "특히나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생각에 멈추지 말고 꼭 시도해 보는

어린이들이 됐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문팔갑 키즈라라 대표는 "키즈라라는 호남 최대 어린이 테마파크로, 전국 어느 테마파크에도 뒤지지 않는 규모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서 "키즈라라를 방문한 어린이들이 좋은 테마파크 시설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 성년이 됐을 때 적성에 맞는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 도곡온천관광단지 내에 위치한 키즈라라는 교육과 재미를 결합한 에듀테인먼트(Education+Entertainment) 테마파크로, 2012년 폐광지역 경제진흥을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250억원), 화순군(205억원), 강원랜드(200억원) 등이 공동 출자해 조성했다. 연면적 8175㎡(2473평) 규모로 30여개의 직업 아이템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직업체험관'과 영유아를 위한 영유아체험관, 푸드코트, 오리엔테이션, 편의시설 등이 조성되었으며, 2만4000㎡(7000평) 규모의 잔디광장도 갖추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호남 최대 어린이테마파크 '키즈라라'의 문팔갑 대표이사가 지난 27일 화순 키즈라라 잔디광장 특설무대에서 축제 참가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스마트폰 어플·키오스크 사용법 쉽게 알려드려요”

광주시, 12월12일까지 디지털 배움터 진행...무료 교육

광주시는 “오는 12월 12일까지 시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24년도 디지털 배움터' 사업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디지털배움터 사업은 '보편적 디지털 접근권 보장'을 목표로, 스마트폰 어플 활용법과 키오스크 사용법 등 다양한 디지털 실생활 중심 교육을 추진한다.

실생활 역량교육 과정은 ▲본인인증 및 공공서비스 ▲금융 및 피싱 예방 ▲인공지능(생성형 AI) ▲실생활 디지털 활용 ▲온라인 콘텐츠 제작(사진, 영상 등) 5가지 주제 기본 역량 교육이다.

또 챗GPT, 인공지능(AI) 윤리 등 실생활 AI

활용 교육 비중을 높이고 디지털 의료 및 헬스케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상설 디지털배움터는 태봉노인복지관(북구 신안동), 한국복지정보통신협회 광주전남지부 정보화교육장(동구 장동) 등 2개소를 선정했다.

상설 디지털배움터는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배울 수 있도록 상시 운영되는 디지털 교육 장소로, 실생활 디지털 교육과 생활 속 자주 겪는 디지털 문제를 도움 받을 수 있는 헬프데스크를 운영한다.

또 디지털배움터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 가운데 디지털 역량교육의 수요가 많은 단체(경로당, 장애인복지관 등)에 대해서는 교육 신청 접수 시 현장 파견 교육도 진행한다.

디지털 교육을 받고 싶은 시민은 디지털배움터 누리집(www.디지털배움터.kr) 또는 콜센터(1800-0096)로 교육 신청하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김기호 광주시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 누구나 디지털 기술을 쉽고 편리하게 활용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시민들의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이 지난 1일 광주 북구 AI사업단 대회의실에서 취임사를 갖고 'AI 실증도시 광주 실현'을 다짐하고 있다.

“인공지능 실증도시 광주 실현” 다짐

오상진 AI사업단장 취임

오상진 제3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하 AI사업단) 신임 단장은 지난 1일 광주 북구 AI사업단 대회의실에서 취임사를 갖고 “30여 년간 쌓아온 정보통신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AI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AI 실증도시 광주' 실현에 온 힘을 쏟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사진〉

오 단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AI 시대의 변혁 중심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AI는 산업, 사회, 문화,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증진의 핵심과제인 만큼,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단장은 “AI사업단은 2020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광주시와 함께 첨단 3지구에 세계적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AI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AI 혁신 생태계를 구축 중에 있다”면서 “이

같은 투자와 노력이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광주를 'AI 실증도시'로 만드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단장은 또 “(올 연말까지 진행되는) AI 집적단지 1단계 사업은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면, 2단계 사업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앞으로 모빌리티, 에너지, 헬스케어 등 3대 중점 분야의 실증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업이 실증하기 좋은 'AI 실증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열정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교수 출신인 신임 오상진 단장은 1993년 기술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정보통신국장, 국가안보실 사이버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등 다양한 보직을 역임한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댕댕아 박물관 가자”...광주시, 반려동물 동반 특별 관람주간 운영

13~18일 광주역사민속박물관 31일 아트피크닉·산책교육 등

광주시는 “8월 26일 '세계 개의 날(International Dog Day)'을 앞두고 13일부터 18일까지 '광주역사민속박물관 반려동물 동반 특별 관람주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기간 광주역사민속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특별전 '광주가 사랑했던 [] 그리고 한류'에 반려동물과 함께 관람할 수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관람할 때는 관람자 1명이 들고 이동할 수 있는 개별 이동장이나 개 유모차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준비하지 못한 시민은 입출구 로비에서 개 유모차와 배변 패드를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다.

또 1층 로비에 설치된 '견생네트' 즉석사진 포토부스에서 반려가족의 추억사진을 무료로 촬영·인화할 수 있고, 관람을 끝내고 인스타그램에 인증하는 관람객에게는 반려동물 수제간식을 제공한다.

휴가철 증가하는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입양 활성화를 위해 '유기동물의 가족이 되어주세요'를 주제로 '유기동물 입양캠페인 사진전'도 1층 로비에서 함께 열린다.

31일에는 역사민속박물관 잔디밭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아트피크닉'이 예정돼 있다. 이 행사는 도심 속 문화예술 소풍인 '아트 피크닉'과 연계해 반려동물 행동교정, 산책교육, 어질리티, 놀이 체험부스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로 진행된다.

주최의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올해로 2회를 맞는 반려동물 동반 문화나들이는 반려가족에게 문화관람의 경험을 선사하고, 놀이·체험부스 등 시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상담문의: 062-449-4446